

해남군 공모사업 선정 '쾌조'

상반기 76개 사업 854억원 확보...전년동기 대비 511억 증가 농촌협약·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민선8기 동력 '청신호'

해남군이 올해도 중앙부처와 전남도 등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쾌조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올 상반기 동안 각종 공모사업에 76건이 선정돼 사업비 85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69건, 343억원보다 7건, 511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민선8기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동력 확보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상반기 선정된 공모사업은 농촌협약 432억원을 비롯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40억원,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건립 24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1억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확충

하게 된다.

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도 3년연속 선정돼 올해 총사업비 21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금까지 총 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15억원을 비롯해 국공립·민간예술단체의 우수공연프로그램 1억 6000만원, 고산유물전시관·공룡박물관 스마트 기반 조성사업 12억원 등에 선정돼 총 16개 사업, 3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의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

원사업 2억 5000만원과 전남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 코리아틀레깅 센터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선정 등은 지역의 현안 해결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240억원 규모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3년간 전기차 공유서비스와 공유차량 자율주차서비스 등 스마트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군은 하반기에도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면밀한 준비로 공모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8기를 기본 좋은 성과와 함께 출범하는 만큼 하반기에도 새정부 국정과제와 변화되는 중앙부처 정책방향을 잘 파악해 반영하고 양질의 공모사업을 발굴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금당도.

완도군, 농산어촌 개발 공모 '금빛안권역' 선정 금당면 차우마을 등 7곳 67억 투입 기반시설 확충 등

완도군의 '금빛안(安) 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사업은 주민들의 협력 하에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해 사업 계획을 세우며, '문답할 천년숲 아름다운 삶터, 금빛안권역'이라는 주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업 대상지는 금당면 차우마을로 봉동, 울포 마을을 비롯한 7개 마을에도 사업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7억원을 투입해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섬마을 탄소 저감 에너지 공동 공급망 구축, 공중목욕탕과 경로복지센터 리모델링, 금빛안 커뮤니티 공간 정비, 금빛안 안전한 생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고, 지역 리더 및 주민 교육, 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목포시, 민선 8기 시정목표 확정

목포시가 민선 8기 시정목표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를 확정했다.

목포시의 시정목표는 박홍률 시장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의 도시, 매력적인 국제형 관광문화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철학과 의지를 담고 있다.

시정방침은 경제·관광·복지·교육·소통 등 5개 분야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충만 관광문화 ▲시민행복 맞춤형복지 ▲인

재양성 미래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 등이다.

민선 8기의 시정방침과 시정목표는 지난 6월 10-15일 시행한 공모를 통해 결정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총 166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내부 심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시는 앞으로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해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창업 지원 등을 통해 신생기업 100개 육성,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목표의 강점을 살려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한편 2000만 관광객시대를 열어 활기찬 청년도시, 생동감 넘치는 젊은 도시 목표로 도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써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양성에 교육도시로의 명성을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박 시장은 "새로운 시정목표와 시정방침에 천명했듯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로 도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써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양성에 교육도시로의 명성을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박 시장은 "새로운 시정목표와 시정방침에 천명했듯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진드기 감염 주의하세요 진도군,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진도군이 여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4월에서 11월 중 중장년층이나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발생하며,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농작업과 산책·산행 등 주민들의 야외 활동이 빈번해지는 여름 시기에 맞춰 농촌 고령자의 예방수칙 홍보를 위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긴팔, 긴옷 등을 입어 피부 노출을 피하고 기피제 사용과 외출 후에는 곧바로 목욕을 하고 입었던 옷의 분리 세탁이 필요하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일본인들의 '신안 단호박 사랑'

올해 100t 등 10년째 수출

신안군이 2022년산 단호박(사진) 100 t 을 일본으로 수출한다.

신안 단호박 일본수출은 2013년 시작,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올해 지도읍 및 하의·신의·장산 작목반(40농가)과 수출 대행업체와의 600 t 계약재배를 통해 5억~6억의 농가 소득이 예상된다.

정정해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단호박은 베타카로틴 A와 베타카로틴이 노화억제와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체지방 감소 및 대사질환 예방 등 웰빙식품으로 수요가 높다.

올해 신안군은 단호박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종자, 멸칭비닐, 비료 및 시설지원 등 9000여만원



을 지원했다.

박우량 군수는 "단호박의 체계적인 작목환경 및 수출물량 증대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법성포 굴비거리 업그레이드 된다

영광군, 메뉴 개발·위생·친절서비스 등 컨설팅 진행

영광군은남도음식거리인 법성포 굴비음식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중순부터 34개 굴비음식점에 대해 메뉴개발·위생·친절서비스 등 컨설팅(사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성포 굴비음식거리는 지난해 법성포 일원에 지역 특색에 맞는 굴비음식과 문화의 거리로 음식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

이번 컨설팅에는 남도외식문화개발원 이은상 대표 외 3명의 전문가가 굴비정식 음식점을 업소별 방문하여 음식을 시식하고 상차림부터 메뉴개발, 위생, 친절서비스, 경영 마인드까지 상담·지도하고 있다.

컨설팅 전문가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예전의 상차림이 아닌 법성포만의 맛과 멋을 내는 상차



림으로 또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할 것과 영업주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컨설팅에 참여한 업소에 대해 위생용품 지원과 지속해서 위생·친절서비스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좀 더 맛깔스럽고 위생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로 '맛 따라 여행하기' 좋은 법성포 굴비음식거리로 거듭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